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학교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로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근본 같지만 마음따라 삶 달라져요

15면에서 계속

바로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몸이 돌아가는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건 생명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없어도 아니 되고, 우리가 마음내는 분별이 없어도 목석일 것이고 우리 몸통이 없어도 남이 볼 때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런 무효고,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삼위일체가 구성돼서 회전을 하나씩 어떤 거를 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주인공이라고 한 거고, '공이다' '없다'고 한 겁니다. 반야경에서 말한 것도 역시 공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했지, 없어서 공이라고, 허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공부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고, 그냥 갈 뿐이고, 그냥 디딜 뿐이고, 그냥 움직여질 뿐이지, 남는 것이 없어요. 때어 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놀이 같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 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놀이 지금 현실에 걸고 있는지는 얘깁니다. 어떤 놀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놀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놀이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공한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선장이 있다면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나와 이러는 겁니다.

우리 방 통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이런 도리를 깨우쳐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안에 불 하나만 켜도 모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한마음이 밝으면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실천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공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스님, 언제나 풀 아니게 이끌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 모두가 이 생애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세세생생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전생의 습에 의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미망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니면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니다. 우리 사는 게 늘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공부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면, 그렇게 오지 않은 앞날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예는 없고, 또 지나간 날에 대해 후회를 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새물로 바꿔 쓰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치지 않고 그냥 갖다 끼우려고 갖다 끼우면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쳐서 끼워야죠, 고장이 난 거는요.

그렇게 내 앞에 걱정이 되어 닳쳐오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이 과거부터 지어 놓은 인연에서 오는 생각이든,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이든, 업보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네 속에서 모든 것이 실행된 거니까,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잖아!' 하고 바꿔 놓는 겁니다. 이게 바꿔 끼우는 거죠, 바꿔 끼우고 믿어야 되죠.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놈을 믿어야죠.

안으로나 외부로나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일차 마음속에서 모두 분자로, 입자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음파라고 하기도 하고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전통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진행해 버려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벽이 있는 놈한테 다 맡겨놔요! 그렇게 바꿔서만 맡겨놔요. "구정을 들어오는 것을 맑은 물로 대체하는 것도 나 아니야!" 하고 돌려놔야 되겠조.

또 어떤 생각이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은 잘 배우게끔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구나, 생각 잘 할 것을...' 이렇게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니다.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에, 느낌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데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심안으로 보게끔 하고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러고도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를 이끌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내기 이전은 다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고, 본래 여려한 자신의 근본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심신을 키워간다면 이런 저런 생각들도 쉬어지게 될 겁니다.

고통에 꼬달리지 않으려면...

저는 올해 29살 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통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연했던, 본래자리 주인공을 믿으려는 가르침에 이제는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허약한 몸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통해 진정시키거나 진통제의 정제를 공부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미망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그림 · 최주현

주인공들로 보지 말고 자문자답 하세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에 더 가질게 없어

게 하려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싶다가도 점차 심한 두통에 시달릴 때면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래,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오기와 짜증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믿고 맡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고통에 꼬달리지 않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없이 그냥! 놓는 겁니다. 거기에 지지분한 꼬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나고 죽어도 그 자리인데 뭐가 붙을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주인공 자리를 확연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더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급해서 안 될 때에는 당신이 한 일이나 당신이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낮게 해 주십시오!' 하고 관하는데 그것은 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와 기도받는 상대가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하는 것은 '주인공, 내가 지금 아프잖아? 아프면 되겠지?' 한다면 내가 나에게, 같이 아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뒤라 말 할 수 없이 진하고 아픈 심정에서 말 아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지만 거울에 사람이 비쳐듯이 비쳐지는 그런 마음의 말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기도와는 다릅니다. 왜 이런 법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복된 길에 들지 못하고

어저 나가는 중생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을들로 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문자답(自問自答)하기를 당부합니다. 오직 불되고 늘어질 곳은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스승인 근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無'자 화두를 들고 있어요

저는 조주선사의 無자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법어를 보면서 일상의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듯이 저는 無자에 다 놓고 있습니다. 때론 "주인공아, 어찌하여 없다(無)했는가" 하며 대하도 합니다. 저는 '주인공'이나 '無'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인공보다는 無자를 더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없다고 했는가?' 하며 無자를 들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 해나가야 할지, 제 편엔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부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도리를 배우고 종독해서 주머니 속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선 너무나 보고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다고 보니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 해야 옛날 선지식들이 화두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넘어왔듯이 그렇게 할 텐데 말입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다 해도 물질로, 형상으로 치달는 게 많고 알음알이가 많아서 진짜 정신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엔 화두를 주어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때에는 그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일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당시에도 화두를 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두를 들고 깨우치신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화두를 어느 스님이 주셨다 그러면 화두를 끊지 말고 들어야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는 일어납니다. 이차적으로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기지 않아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좌선을 해도 꼭 그것을 가지고 '뭘 뭘 뭘'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이 준 화두를 바로 굴리질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화두는 마음을 화두를 받은 것이지 화두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름이 없으면 받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고 간에 마음으로 마음을 주었지, 화두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 될 한 방울이라면 그 영원한 근본에 틀어박히지 말고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한 방울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대로 한마음이에요.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했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까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가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유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깁죠.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으니 항상 그곳은 비워져 있다는 얘깁니다.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가지고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불발이다 라는 걸 겪고서는, 그것을 놓질 못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이 문을 만들어 놓고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몸통이 화두입니다. 남한테 이끌려서 자기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수박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이게 뭐냐고 하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수박을 칼로 탁 잘라서 그 수박 속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공부를 해나가야 바랍니다.

조직 소속해야 공부 잘 됩니다

선도수련을 하다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스님을 친견하고 싶은데 기회가 오질 않는군요. 여쭙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임 신도회에 소속되어야 바람직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도자들의 모임이라고도 조직에서는 좋지 않은 태성이 생긴다고도 하는데요. 스님 곁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생활에 쫓기다보니 법회에 참석하기 힘듭니다. 스님께서는 혼자 공부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원의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끔 법회만 찾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로 통하려면 자기 신념이 필요한 거지, 이 공부는 누구에게 물어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공부

법공양 페이지

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러서느냐 물러서지 않느냐, 또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도반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하는 도반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발심을 해서 정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죠.

만물만생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승입니다. 둘 하나라도 스승이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나쁘게 해서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까지도 다 스승일 수 밖에는요. 매사를 그렇게 해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빨리빨리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걸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꼬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 빛을 갖아야 할 부모도 건질 수가 없고, 아래로 뿌려놓은 후손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결연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나 하는 문제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허공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벗어나질 못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덩어리 자체도 자유스럽게 구르지를 못하고 매여서 삽니다. 우리도 매여서 살고 있고요. 한 치도 벗어나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할 것인가를 왜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그대로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내 의지가 굳어지는 대로 그냥 집어삼키며 가는 거지요. 이것은 중(中)세계의 진리이기에, 삼세를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진리이기에 보고 듣는 그 속에서 삼세를 뛰어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지장보살 발원 이루어면...

지장보살님의 발원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참된 진이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지금의 모든 현실은 허상이고 또한 진실이라 사료됩니다. 어리석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시오.

지장보살님입니다. 부처님이다. 불성이다 하는 이 모두가 다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물건을 컵이라고 이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뜻을 모르고 만약에 지장보살님이라고 위대하게만 자기 위에 놓고 찾는다면 그것은 밖으로 찾는 것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망상이며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무명의 굳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생각을 내지 말고 안으로 돌리십시오. 불성, 즉 여러분의 불성은 지장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슬한 보살님의 명호와 일체 부처님의 명호를 다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지장보살만 따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성지리는 여러분 모두의 근본 진리인 동시에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약사보살도 그 무엇이란 거기에 다 들어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결합되어서 한군데에서 들고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장보살 따로, 관세음보살 따로, 약사보살 따로, 부처님 따로, 구분지어서 부르고 찾는 수단은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밖으로 찾지 말고 자기 내면의 주인공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맡겨놓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만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자기 한 몸도 건질 수 없을 뿐더러 자기 가정마저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혹은 악을 보듯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이서온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디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